

도, 지역고용혁신추진단 공모 선정

향후 '지역혁신 프로젝트' 발굴·제안 통해 3년간 최대 150억원 국비 추가 확보 가능

전북도가 지역일자리 창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체 중심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혁신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지역고용혁신추진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일자리 사업인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추진단 공모신청에 앞서 전주 고용지원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노사발전재단 등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인사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추진단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는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이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수행기관으로 함으로써 기존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조사와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을 함께 수행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단을 통해 7월까지 인력 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안하면 연간 국비 최대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고용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 전북도 내 14개 시군,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인 일자리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3곳에 지정서 수여

전주시가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전주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16일 시장실에서 '2016년도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비나텍(주)(대표 성도경), (주)아토크엔에이(대표 장선일), (주)티엠시(대표 김기열) 3개 기업 대표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미국시장 진출 및 해외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의지를 가진 기업에 해외시장 확대 및 자체 현지 영업조직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지역혁신센터), 한국탄소과학기술원, 텍사스 주립대학교(UT)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시는 사업공고를 통해 전주지역 11개 업체로부터 사업지원서를 접수, 카이스트와 UT의 1차 서면평가를 통해 8개사로 압축했다. 이후, 현장평가 등을 거쳐 미국시장진출에 경쟁력을 보유한 3개 업체를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UT에서 미국시장기회분석보고서인 Market Assessment Report를 제공 받고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선정해 직접적인 미국시장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최종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UT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고객 및 유통망 발굴 인증 및 지적재산권 자문 등 집중적인 시장개척 및 영업활동이 지원된다.



전주시는 16일 전주시시장실에서 '2016년도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비나텍(주)(대표 성도경), (주)아토크엔에이(대표 장선일), (주)티엠시(대표 김기열) 3개 기업 대표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미국시장 진출 및 해외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농어촌공, 군산항 항로준설사업 재개 움직임

감사원 '군장항 항로준설사업 관리 부적정' 지적... 농어촌공, 연내 사업 재개 밝혀

지난해 5월부터 중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군산항 항로준설사업이 재개될 움직임이 보여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감사원이 해양수산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군장항 항로준설사업 관리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군산항 내측 이용 선박의 원활한 통항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어촌공사와 군산해수청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농어촌공사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 매립도 확보 및 군산항 입출항 선박의 항로수심 확보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항로입구와 항로내측구간에 대해 각각 항로준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산업단지 개발방식이 민간개발 대행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항로준설이 중단됐다.

이에 도는 군산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군장항 농어촌공사 항로준설 중단구간 준설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농어촌공사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연내 사업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감사원이 해수부의 기관운영감사 중 군장항 항로준설사업 관리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농어촌공사와 군산해수청에 군산항 내측 이용 선박의 상시 통항 조치를 통보받음으로써 도와 농어촌공사는 기재부에 내세울 명분이 생긴 것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구간의 준설이 올해 안으로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재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도, 고군산군도 교량 지명 통과

신시해안·신시·고군산대·무너·선유·장자교

고군산군도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교량 6건에 대한 지명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지명은 신시해안교, 신시교, 고군산대교, 무너교, 선유교, 장자교 등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교량 6건이다.

16일 전북도는 '2016년도 제차 전라북도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명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군산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교량 6건의 지명 제정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만을 남겨뒀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너도, 선유도, 장자도의 고군산을 연결하는 도로 및 해상교량 건설사업이다.

이 중 1, 2공구(4.39km, 1~4 교량)는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너도를 잇는 구간으로 2016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며, 3공구(4.38km, 5~6 교량)는 무너도, 장자도를 잇는 구간으로 2017년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6개 교량의 지명을 기존의 도서 명칭을 이용함으로써 고군산군도를 아우르는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을 늘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교량 6건에 대한 지명 제정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소망한다"며 "특화된 스토리텔링 발굴 작업,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병행 고군산 관광지도 거점발전 수 있도록 고군산을 연결하는 도로 및 해상교량 건설사업이다."

/정영수 기자

도 탄소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 효과

1분기 매출액 4억 6,0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147.6% 증가

전북도의 탄소제품 인지도 부족 등의 원인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도내 탄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국비를 통한 탄소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앞으로 도내 탄소제품의 판로 확보는 물론 전국에 전북 탄소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탄소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국비가 지원돼 실시됐다.

이 사업은 시·군이 공공용 탄소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는 11개 시·군이 구입하는 6개 품목의 탄소제품에 대해 국비 2억 8,000만원이 지원돼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까지 발생한 탄소제품의 매출액은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약 4억 6,000만원 정도의 순매출을 기록해 전년대비 14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앞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매출액을 계산하면 매출 증가율은 훨씬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기업은 도내 공공구매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강원, 전남, 일대 등 타시도에서 판매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품목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파리 코트라) 현지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탄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 그동안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입해 개발한 탄소제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인지도가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도내 공공구매 판매실적은 보증수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판매에 큰 보탬이 되었다"며 "생소했던 탄소제품의 우수성이 타시도에 많이 알려져 메이드인 전북 탄소제품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탄소기업의 판매실적을 확보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판로를 확대해 성장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지원은 필요하나, 사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타시도 등에 판매 유망 제품을 우선 지원하고 시장성이 낮은 제품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권키에게 맡겨주세요!
 ◎ 감사과 파워 스피치로 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달아주세요!

〈김양옥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도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사
- 한국스피치센터 설립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 저서: '35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 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광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